

정책자료 93-05

# 최근 世界經濟의 沈滯와 우리經濟에의 示唆點

1993. 9.



對外經濟政策研究院

# 최근 世界經濟의 沈滯와 우리經濟에의 示唆點

1993. 9.



對外經濟政策研究院



## 序 言

최근 世界經濟環境은 舊蘇聯의 政情不安과 經濟的 혼란 지속, 獨逸統一에 따른 後유증과 國際外換市場의 不安, 80년대 후반 호황기에 부풀었던 「거품經濟」의 붕괴, 地域主義 심화와 通商摩擦의 증대 등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금년부터 景氣回復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이와 같은 世界經濟與件 惡化에 따라 景氣 回復遲延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92년 하반기중 상당한 회복세를 보였던 미국경제는 금년들어 회복력이 극도로 약화되었으며, 92년중 1.5%의 저성장을 나타낸 日本經濟도 여러번의 景氣浮揚策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EC국가들의 상황은 더욱 나빠 마이너스成長과 함께 10%대의 높은 失業率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景氣沈滯가 내년에도 이어져 失業率은 12%에 육박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이와 같은 世界經濟 침체의 배경에는 각국의 財政赤字문제와 金融政策의 효과제한, 先進國間 政策協調의 약화, 舊社會主義圈의 혼란지속 등 構造的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世界經濟의 조속한 回復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世界經濟의 沈滯와 이에 따른 海外 輸入需要의 不振, 세계경제의 不確實性은 「新경제」 5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하여 先進國으로의 도약을 시도하고 있는 우리經濟에 몇가지 어려움과 함께 이를 극복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本 政策資料는 이와 같이 어려운 國際經濟與件과 主要國의 經濟狀況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政策對應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정리하여 간략하게 묶어본 것이다. 本院은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徐壯源, 金南斗, 魯在峯, 兪鎮守, 李昌在, 任千錫, 曹琮和, 崔仁範박사 등이 심층 분석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그 중 핵심부분만을 간추려 편집하고자 하였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현재 및 향후의 世界經濟를 眺望하는 데 있어 政策當局者들이나 民間經濟專門家들에게 一助가 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本 政策資料에 제시된 見解들은 이에 참여한 上記 執筆者들 각자의 것이며, 本院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3년 9월

對外經濟政策研究院

院長 柳 莊 熙

# 目 次

I.  최근 世界經濟의 沈滯와 問題點	7
1.  최근 世界經濟의 沈滯 現況	7
2.  世界經濟의 問題點	10
II.  主要 地域別 經濟動向	17
1.  美國經濟	17
2.  日本經濟	25
3.  EC經濟	32
4.  中國經濟	41
5.  러시아經濟	46
6.  아시아開途國 經濟	50
III.  우리經濟에 대한 示唆點	55
1.  示唆點	55
2.   우리의 對應方案	57



## I. 최근 世界經濟의 沈滯와 問題點

-80년대말의 탈냉전 이후 軍事的 對決보다는 國家間 經濟協力을 바탕으로 한 世界經濟의 活性化가 期待되었으나, 90년대 들어 세계경제는 구소련과 동구의 政情不安 계속, 서방선진국간의 政策協調 弱화, 經濟摩擦 增大, 外換市場의 不安, 保護主義의 深化와 함께 景氣回復 遲延現象이 뚜렷해지고 있음.

-상기의 제반 문제점들과, 최근 經濟回復을 지연시키는 각국의 財政赤字문제 및 金融政策의 효과제한 등 政策運用의 제약은 대체로 구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世界經濟의 조속한 回復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1. 최근 世界經濟의 沈滯 現況

#### (1) 先進國 景氣沈滯와 高失業

-80년대 후반중 長期好況局面을 구가하였던 선진국경제는 90년대 들어 일시적인 調整局面을 거치는 듯 하였으나, 92년에 이어 93년 들어서도 뚜렷한 回復勢를 보이지 못하고 成長不振과 심각한 失業事態에 직면해 있음.

-91년중 10년만에 처음 마이너스 成長率을 보인 美國經濟는 92년 하반기중 뚜렷한 回復局面을 보이다가, 금년 상반기중 回復力이 다시 약화되고 있음.

-92년중 1.5%의 저성장에 그친 日本經濟는 작년 하반기 이후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금년 들어서도 産業生産이 전년에 비해 5%정도 減少하는 등

戰後 최악의 沈滯局面을 持續하고 있음.

—域內市場 單一化를 통한 經濟活性化가 기대되던 EC는 92년중 1.1%의 低成長과 10%이상의 高失業率 등 심한 景氣沈滯를 겪은데 이어, 금년중에는 더욱 심한 沈滯局面으로 빠지면서 GNP의 마이너스 成長과 11%대의 높은 失業率이 예상되고 있음.

〈表 1〉 主要國의 실질 GDP 成長率

(단위: %)

	1980-82	1983-89	1990	1991	1992	1993전망
美 國	-0.3	3.7	1.2	-0.7	2.6	2.6
日 本	3.5	4.2	4.8	4.0	1.3	1.0
獨 逸	0.1	2.4	5.1	3.7	2.0	-2.0
E C	0.7	2.7	3.0	1.4	1.1	-0.4
OECD	0.8	3.4	2.4	0.7	1.5	1.2

資料: OECD, *Economic Outlook*, June 1993.

〈表 2〉 主要國의 失業率 推移

(단위: %)

	1988	1990	1991	1992	1993전망
美 國	5.5	5.5	6.7	7.4	7.0
日 本	2.5	2.1	2.1	2.2	2.5
獨 逸	7.6	6.2	6.7	7.7	10.1
E C	10.3	8.7	9.2	10.1	11.6
OECD	7.0	6.4	7.2	7.9	8.5

資料: OECD, *Economic Outlook*, June 1993.

## (2) 高成長 開途國의 成長鈍化 可能性

—80년대 후반이후 高成長을 지속하고 있는 아세안국가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東아시아 지역 및 멕시코 등 中南美 國家들은 높은 成長勢를 지속하고 있으

나, 先進國의 경기침체와 국제수지 악화 등으로 成長率이 鈍化되고 있음.

—고성장을 지속한 中國 등은 경기과열에 따른 物價不安, 선진국으로부터의 通商壓力 加重 및 貿易收支의 급속한 弱化 등 副作用도 우려되고 있음.

〈表 3〉 主要 開途國의 실질 GDP 成長率 (단위: %)

	1989	1990	1991	1992	1993전망
韓 國	6.8	9.3	8.4	4.7	6.0
臺 灣	7.3	5.0	7.2	6.1	6.5
中 國	4.4	4.1	7.7	12.8	10-11
아르헨티나	-4.5	0.4	7.9	8.5	6-7
멕시코	3.3	4.4	3.6	2.7	2-3
러시아	1.4	-2.0	-9.0	-19.0	-

資料: OECD, *Economic Outlook*, June 1993.

(3) 國際貿易 伸張勢의 鈍化

—90년대 들어 선진국의 經濟沈滯 지속과 貿易環境의 악화로 世界貿易伸張勢는 80년대 수준에 비하여 크게 不振한 실정임.

〈表 4〉 主要先進國의 輸入物量 伸張率 (단위: %)

	1989	1990	1991	1992	1993전망
美 國	6.4	2.2	0.7	11.0	7.4
日 本	7.9	6.0	2.8	-0.7	1.5
獨 逸	7.1	9.9	9.3	2.3	-0.4
E C	8.2	6.1	4.6	3.1	0.8
OECD	7.6	4.8	2.6	4.5	2.6
世 界	6.8	5.8	3.3	5.2	4.5

資料: OECD, *Economic Outlook*, June 1993.

WEFA, *World Economic Outlook*, July 1993.

-80년대 후반중 연평균 6%내외였던 世界貿易量 增加率은 91~92년중 연평균 3~4%, 93년중에는 5%수준 이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2. 世界經濟의 問題點

-國際原油價가 배럴당 20달러 이하의 수준에서 안정되고 美國·日本 등의 金利引下政策으로 금리가 60년대 이래 가장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世界經濟가 沈滯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요인들을 찾아보면 아래와 같음.

### (1) 主要國간 政策協調體制 弱化

-美國을 중심으로 선진국간의 政策協調體制가 90년대들어 급속히 弱化되고 있는 바, 이는 ① 미국의 국제경제적 指導力 弱化和 일본·EC의 경제력 증대에 따른 세계경제의 多極化 趨勢, ② 脫冷戰 이후 자국의 경제적 실리추구에 따르는 國家利己的 행동에 연유함.

-주요국들의 協調的 景氣浮揚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獨逸은 국내 인플레이 악화를 우려하여 高金利政策을 지속하고 있으며, 막대한 經常收支 黑字를 보이고 있는 日本이 과감한 內需擴大를 꺼리는 점이 그 대표적인 예임.

### 〈國際收支 不均衡의 深化〉

-플라자합의 등 선진국간의 노력으로 선진국간의 收支不均衡은 80년대 하반기 중 縮小되는 추이를 보였으나, 91년 이후 다시 擴大되고 있음.

— 전통적인 흑자국이었던 西獨이 統獨以後 동독지역에 대한 막대한 投資로 經常收支 赤字國으로 돌아선 이후, 日本은 주요 선진국중 유일한 대규모 經常黑字國으로 등장하면서 黑字幅이 계속 擴大되고 있는 반면, 美國의 經常赤字는 91년 이후 다시 확대되고 있음.

〈表 5〉

主要國의 經常收支 推移

(단위: 십억불)

	1986	1990	1991	1992	1993 전망
美 國	-147.5	-90.4	-3.7	-62.4	-81.0
日 本	85.9	35.8	72.9	117.6	138.6
獨 逸	39.5	47.3	-19.9	-25.8	-29.0
臺 灣	16.3	10.8	12.0	7.9	5.0
韓 國	4.6	-2.2	-8.7	-4.6	-3.0

資料: OECD, *Economic Outlook*, June 1993.

〈엔貨價値의 暴騰〉

— 이와 같은 國際收支의 不均衡 解消를 위한 先進國間 협조부진으로 막대한 貿易黑字를 가진 일본의 엔貨는 금년들어 急騰勢를 나타내고 있음.

— 엔貨는 달러貨에 대하여 전후 최저수준이자 심리적 저지선이라 할 수 있는 달러당 100엔 수준에 이르고 있음.

〈유럽外換市場의 混亂〉

— 先進國間의 거시경제정책협조의 약화속에서, 유럽외환시장에서는 獨逸의 고금리정책 지속에 따른 마르크貨의 강세와 英國 파운드貨와 프랑스 프랑貨의 暴落 등으로 유럽通貨秩序가 大混亂에 빠졌음.

—이러한 유럽외환시장의 混亂은 엔貨에 대한 投機需要를 부추기는 등 전반적인 國際外換市場 不安을 야기하고 있음.

—이러한 外換市場의 불안은 世界貿易 및 國際金融去來上의 불확실성 증대 및 각국의 巨視經濟政策運用 制約 등의 否定的인 영향을 가져오게 됨.

〈表 6〉 主要通貨의 換率 推移(期間中 平均)

	1985	1990	1992	1993.8.16
Yen/\$	238.6	144.8	126.7	101.6
DM/\$	2.944	1.616	1.562	1.680

## (2) 不安定과 不確實性

### 〈貿易摩擦 深化〉

—협상력이 강한 美國과 EC 國家들의 貿易收支 惡化 및 多國間 貿易協商의 부진 등에 따라, 主要國들은 강력한 貿易制裁法規를 도입하고 있으며 주요 교역국가간 빈번한 貿易摩擦이 야기되고 있음.

○93년들어 미국 신행정부는 수퍼 301條를 復活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鐵鋼과 半導體 등에 관한 反덤핑·相計關稅 부과를 둘러싼 미국과 수출국간의 摩擦, 通信·發電裝備의 政府調達에 관한 미·EC간의 對立 등 貿易摩擦이 심화되었음.

○한편 미국 등의 강력한 貿易制裁 壓力에 당면한 일본은 93년중 報復關稅制度를 도입·활용할 것임을 밝혀 세계적인 貿易戰爭의 우려를 높였음.

〈美國과 日本의 新政府出現〉

—세계경제의 두 중심국인 美國과 日本의 경우 금년중 새로운 정부가 등장함으로써, 經濟政策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

—미국의 경우 12년만에 집권한 民主黨의 클린턴 行政府는

- ① 對外問題보다는 國內經濟의 活性化에 政策의 重點을 두며
- ② 公共投資增大를 통한 景氣浮揚策과 함께, 財政赤字의 대폭 削減이라는 다소 相反的인 經濟政策을 추구하고 있고
- ③ 對外通商政策에서는 自由貿易主義를 표방하면서도, 국내경제침체와 실업 해소를 위한 輸出增大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不公正 交易相對國에 대해서는 強力한 通商政策을 펼 것을 주장함으로써, 향후 美國經濟의 回復展望과 世界貿易에 미칠 영향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임.

—日本의 경우 40년 가까운 장기간의 自民黨 政權이 물러나고, 改革을 기치로 내건 7개정당의 聯政이 출범하였으나 政權의 安定성과 政策의 內容 및 그 추진력에 대한 不確實성이 매우 큼.

〈UR協商과 新라운드 推進〉

—UR협상은 지난 7월 동경 G-7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최근 協商이 재개되어 今年末까지의 妥結可能性이 매우 높아졌으나, 美·EC 양측의 기본적인 입장차이와 시간적 제약 등을 감안할 때, 妥結이 어려운 분야는 다음 協商으로 넘기고 合意可能分野만을 중심으로 한 協商妥結(Small Package)로 끝날 가능성이 높음.

—이렇게 될 경우 미국정부는 UR이후의 새로운 多國間協商으로서, 독점금지 등 競爭政策, 環境保護, 技術政策, 投資, 勞動 등을 포괄하는 「클린턴라운드」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새로운 관심을 모으고 있음.

### (3) 舊社會主義 經濟圈의 混亂繼續

—구소련 및 동구제국은 政情不安 持續과 貨幣改革 등 시장경제체제로의 급속한 전환에 따른 政治的, 經濟的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격심한 生産 減退와 심각한 高인플레이가 계속되고 있음.

—또한 구소련의 對外債務償還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서방으로부터 막대한 財政支援을 필요로 하고 있어 당분간 世界經濟의 회복에 負擔要因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4) 世界的인 需要增加勢 鈍化

—80년대 호황기 중의 資産價値 급상승에 따른 이른바 「경제의 거품(economic bubble)」이 90년대 들어 급속히 위축되면서 消費者의 購買心理 위축, 銀行의 不實債權 증가 및 企業의 財務狀態 악화 등에 따른 投資心理위축과 投資餘力 감소 현상이 景氣沈滯를 장기화시키고 있음.

—한편 유럽의 경우 80년대 중반이후 EC統合을 앞두고 企業의 設備投資가 앞당겨 이뤄짐으로써 최근들어 投資가 상대적으로 萎縮되었으며, 일본기업의 경우 급격한 엔貨價値 上昇으로 企業들의 設備投資 余力이 萎縮됨.

—脱冷戰이후 미국 등의 國防關聯産業에 대한 需要沈滯로 이들 産業의 급격한

萎縮도 世界景氣不振의 요인으로 작용함.

○특히 航空機, 大規模 戰艦, 高度技術 兵器 등의 경우, 산업특성상 높은 後方連鎖效果를 감안할 때 이들 업종에 대한 수요감소는 經濟全體의 상당한 生産減少效果를 초래할 수 있음.

-또한 과거 라디오, 自動車, 컬러TV 등의 등장에 따른 세계적인 수요폭증을 초래할 만한 革新的인 新製品이 상당기간 등장하지 않음으로써, 세계적인 消費需要와 投資需要의 增加勢가 鈍化됨.

(5) 財政政策의 制約

-財政赤字의 持續과 公共債務의 累積 때문에, 先進各國은 경기부양을 위한 財政支出擴大(그에 따른 재정적자 증가)정책을 채택하기 어려운 상황임.

-미국의 경우 80년대중 財政赤字 縮小를 위한 의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92년의 경우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GDP의 5%에 해당하는 약 3,000억달러에 달하고 있음. 80년대초 1兆달러의 聯邦債務는 92년말 4兆달러에 달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자지급만도 聯邦財政支出의 18%에 이르는 실정임.

<表 7> 主要國 中央政府 財政收支의 對GDP 比率

(단위: %)

	1988	1990	1991	1992
美 國	-3.8	-4.0	-4.6	-5.0
日 本	-1.1	-0.3	-0.3	-1.6
獨 逸	-1.7	-2.9	-1.9	-1.4
프 랑 스	-1.7	-1.5	-1.8	-3.3
英 國	+0.9	-0.6	-2.7	-6.8

資料: OECD, *Economic Outlook*, June 1993.

-그밖에 프랑스와 英國도 92년중 각각 GDP의 3.3%와 6.8%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안고 있어 財政支出增大를 통한 대폭적인 景氣浮揚策이 곤란함.

#### (6) 金融政策의 限界

-국내경기부양을 위해 金利引下措置를 취한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景氣浮揚效果가 과거와 같이 뚜렷하지 못하였음.

-그 원인은 ① 미국의 경우 소비자와 기업 공히 70~80년대를 거쳐 이미 過重한 負債를 안고 있어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자금차입을 통한 消費支出과 投資를 주저하고 있으며, ② 미국, 일본 공히 (약간의 시차를 두고) 不動産價格의 하락, 株式價格 하락 등 이른바 거품위축현상이 일어나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불량채권 증대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마저 나빠져 금융기관의 대출자세가 신중해짐으로써 민간의 消費와 投資에 큰 刺戟을 주지 못하였음.

-한편 경기부양을 위한 金融緩和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高金利政策을 지속함으로써 世界經濟 回復의 걸림돌로 지적받고 있음.

○國際收支惡化와 인플레이壓力을 이유로 독일 연방은행은 90년이후 高金利政策을 계속하여 마르크貨의 강세와 餘他 유럽通貨의 暴落을 초래함으로써, 결국 유럽환율메카니즘(ERM)에 따라 自國換率을 일정 범위내에서 유지해야 하는 여타 유럽국가들은 자국통화 가치안정을 위하여 金利를 引上하거나, 혹은 金利引下措置를 취하지 못하였음.

## II. 主要 地域別 經濟動向

### 1. 美國經濟

#### (1) 最近 景氣動向

— 지난 89년부터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한 미국경제는 91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극심한 景氣沈滯를 경험한 후 92년 3/4分期과 4/4分期 중 회복세를 나타내었으나 금년들어 회복세가 둔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금년 1/4分期과 2/4分期에 각각 前期比年率 0.8%와 1.8%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4/4분기의 4.7%에 비해 아주 저조한 성장률임.

○ 이는 클린턴행정부의 景氣浮揚策이 공화당의 반대로 실시되지 못한데다,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增稅政策이 민간소비심리를 위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表 8〉 美國經濟 主要指標

	實質GDP成長率 (前期比年率, %)	失業率 (平均, %)	消費者物價上昇率 (前期比, %)	優待金利 (期末, %)
1989	2.5	2.3	4.8	10.5
1990	1.2	5.5	5.4	9.5
1991	-0.7	6.7	4.3	6.5
1992	2.6	7.4	3.0	6.0
1993(1/4分期)	0.8	7.0	1.2	6.0
(2/4分期)	1.8	7.0	0.5	6.0

資料: CEA,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Feb. 1993.

### 〈不安한 短期景氣指標〉

-이와 함께 短期經濟指標들은 최근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어 본격적인 景氣回復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6월중 鑛工業生産指數는 110.1을 기록하여 전월비 0.2% 하락하였고, 7월중 消費者信賴度指數도 전월비 0.9포인트 하락한 57.7을 기록함.
- 반면, 6월중 景氣先行指數는 전월비 0.1% 상승한 151.6을 기록하였으며, 7월중 失業率도 전월비 0.2%포인트 낮은 6.8%를 기록하였음.
- 또한 6월중 미국의 小賣上高는 5월의 1,701억 달러보다 1.06% 상승한 1,719억달러를 기록하였으며, 6월중 주택착공건수도 5월의 124.4만호보다 0.8% 증가된 125.4만호를 기록하여 住宅建設景氣의 회복세가 3월이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貿易 및 經常收支의 惡化趨勢〉

-美國의 輸出은 최근 수년간의 제조업 생산성 향상에 힘입은 국제경쟁력 회복과 함께 한국, 대만, 홍콩 등 아시아 新興工業國의 수입수요증대가 겹치면서 상당한 증가추세를 보였음.

- 한편 輸入은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감소로 인하여 1991년에는 하락세를 보였으나 美國景氣가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1992년에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음.

-이에 따라 미국의 무역수지는 國際收支基準으로 볼 때 1987년에 약 1,60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절정을 이룬 후 계속 적자 감소추세를 보여 1991년에는 738억달러 적자로까지 축소되었었음. 그러나 작년에 다시 증가되어 961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였음.

- 올해 들어서는 1/4분기 중 291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였고, 이는 92년 4/4分期보다 12%가 증가된 액수이며, 1988년 4/4分期 이후 분기별 적자의 최고치임.
- 이 기간 중 수출은 資本財輸出의 감소 등으로 92년 4/4分期 對比 2.1%가 감소된 1,112억달러를 기록하였고, 수입은 유류수입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92년 4/4分期보다 0.5%가 증가된 1,141억달러를 기록하였음.

— 한편 미국의 經常收支赤字는 1987년에 1,600억달러를 넘으면서 절정을 이루었으나, 그후 계속 감소추세를 보여 1991년에는 무역수지 개선과 더불어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약 500억달러의 걸프戰費 지원금 등으로 37억 달러로까지 대폭 축소되었었음.

- 그러나 그후 戰費 지원금과 같은 일시적 요인이 없어지고, 무역수지 적자가 다시 악화되면서 1992년에는 664억달러로 다시 증가되었음.
- 올해 들어서는 1/4分期에 209억달러의 經常收支 赤字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1990년 4/4分期 이후 분기별 적자액 중 最高值임.

— 이와 같이 美國의 무역수지 적자와 경상수지 적자는 1987년 이후 감소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1991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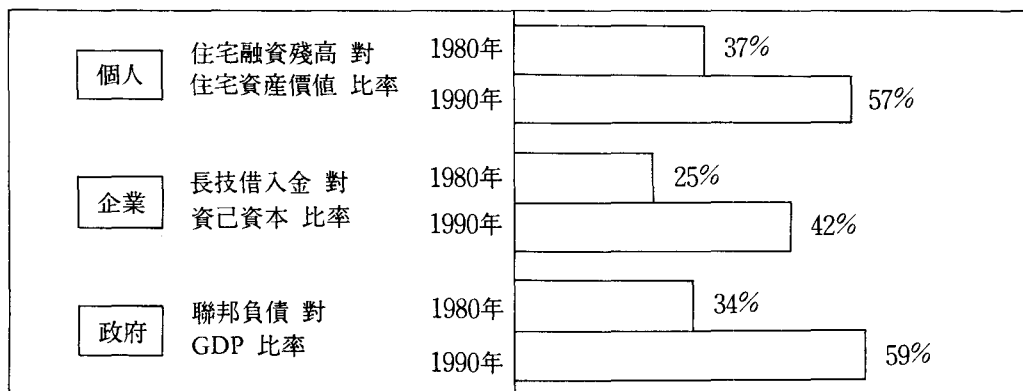
## (2) 景氣沈滯의 背景 및 問題點

### 〈景氣沈滯의 根本要因〉

— 이렇게 美國經濟가 침체현상을 못벗어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個人·企業·政府 모두가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기 때문임.

- 美國家計經濟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中産層의 경우 지난 80년대의 과대한 융자를 통한 不動産投資로 인하여 個人住宅資産價値에 대한 住宅融資殘高 비율이 1980년의 37%에서 1990년에는 57%로 상승하는 등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실정임. 이 때문에 중산층의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민간소비의 성장을 막고 있음.
- 기업의 경우도 부동산투자에 열중한 결과로 自己資本에 대한 長期借入金의 비율이 1980년의 25%에서 1990년에는 42%로 뛰어올라 많은 기업이 부채에 늘려 있음. 따라서 기업이 증자를 하더라도, 우선 빚을 갚으려 하므로 신규투자가 부진하게 됨.
- 政府 또한 막대한 聯邦財政赤字에 놀려 지출억제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상황임. 미국 연방정부부채의 對 GDP比率은 1980년의 34%에서 1990년에는 59%로 급증되었음.
- 즉, 현재 미국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80년대의 경제성장이 負債過重現

〈圖 1〉 80年代 美國經濟의 負債增加現狀



狀을 가져옴에 따라 미국경제가 構造調整局面에 들어가면서 겪고 있는 거품 經濟의 후유증이라 할 수 있음.

〈低金利 政策의 景氣浮揚 效果不足〉

-부시行政府는 경기회복촉진을 위하여 美聯準에 금리인하를 촉구했었으며, 이에 따라 美聯準은 금리인하를 계속 단행하였음.

○그에 따라 지난 12月末에는 再割引率이 1960년대 초반이후 最低值인 3.0%로 인하되었고, 그 결과로 主要 市中銀行의 優待金利도 6.0%까지 하락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美聯準의 꾸준한 금리인하정책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본격적인 금융확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金融壓迫(Credit Crunch) 現象이 지속되어 경기부양효과를 나타내지 못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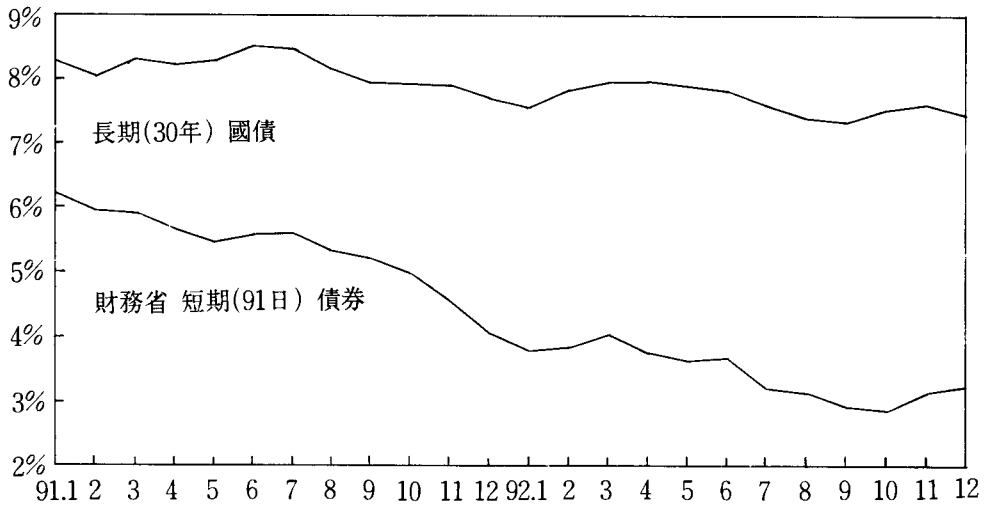
-이와 같이 低金利政策의 無氣力現象이 일어나고 있는 배경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지적할 수 있음.

○첫째, 美聯準의 金利引下로 시중은행들의 단기금리는 떨어졌으나, 기업의 설비투자에 중요한 장기금리는 크게 하락하지 않았음. 따라서 短期金利의 引下는 단지 투자자의 자금을 은행예금에서 증권이나 채권으로 이동시켜서 總通貨(M2)增加率이 낮아짐과 동시에 시중의 流動性 증가에 기여하지 못하였음.

○둘째, 기업들이 新規設備에 대한 投資를 꺼리고 관망하는 태세를 취하고 있음. 즉 현재의 低金利수준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앞으로의 金融壓迫現象을 우려하여 신규투자를 주저하고 있고 설사 저금리에 대출을 받더라도 부채축소에 우선을 두고 있으므로 신규투자는 꺼리고 있음.

○셋째, 지난 1981년과 1982년의 稅制改革으로 借入金 利子에 대한 稅金控除

〈圖 2〉 長期 및 短期金利의 最近 變化推移



가 가능했으나, 이러한 세금혜택이 지난 1986년의 세제개혁으로 인하여 폐지되자, 기업들은 금융기관차입을 통한 資金調達(Debt-Financing)보다는 주식시장을 통한 資金調達(Equity-Financing)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저금리의 투자촉진 효과가 미약함.

- 넷째, 不動産價格의 하락 등으로 금융기관들의 채권이 부실화되고 은행들의 파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은 까다로운 融資條件을 제시하고 있고, 위험도가 높은 대출은 꺼리고 있음. 특히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 경우 각종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대출을 어렵게 하고 있음.

— 결국 현재 미국경제가 겪고있는 금융압박은 資金供給이 부족하여 資金需要를 못따라가는 현상이라기 보다는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함께 줄어들어 信用創造(Credit Creation)가 부족한 현상이라 할 수 있음.

〈막대한 財政赤字〉

—이와 같이 金融政策의 效果가 미약한 상황에서는 財政擴大政策이 효과적인 경기부양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문제 때문에 재 정확대정책실시에 어려움이 있음.

—美國의 財政赤字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증하기 시작하였으며, 1983년 에 GDP의 6.3%에 相當하는 재정적자를 기록하며 정점을 이루었고, 그후 점 차 감소추세를 보였었음.

○그러나 1990년 이후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서서 1991 會計年度 중에는 GDP 의 4.8%에 相當하는 2,695억달러를 기록하였고 1992 會計年度에는 GDP의 4.9%에 相當하는 2,902억달러를 기록하였음. 이러한 財政赤字로 누적된 美 聯邦政府의 총부채는 4조달러에 달하고 있음.

(3) 向後 展望

—클린턴行政府는 政策의 최우선 순위를 經濟活性化에 두고 「國民을 最優先으 로(Putting People First)」라는 기치아래, 中産層과 一般庶民을 겨냥하여 雇傭 創出 및 所得不均衡 解消를 위한 經濟政策을 채택하고 있음. 클린턴行政府 의 國內經濟政策은 대략 4가지로 要約될 수 있음.

○첫째는 현재 沈滯되어 있는 美國經濟를 회생시키기 위한 短期景氣浮揚策이 며, 둘째는 美國經濟의 生産性 增加 및 國際競爭力을 되찾기 위한 公共投 資增大 政策이고, 셋째는 財政赤字減縮案, 그리고 넷째는 보다 效率的으로 美國政府를 運營하는 것임.

—그러나 클린턴의 경제정책은 米의회 의 반대에 부딪쳐 短期 景氣浮揚策이 공

화당측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등 시작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미의회가 통과시킨 財政赤字 減縮案은 클린턴 행정부의 당초계획보다 축소된 내용을 담고 있음.

- 주요내용은 法人稅率을 34%에서 35%로 인상하고, 부유층에 대한 所得稅率도 31%에서 36%로 인상하며, 휘발유 消費稅를 갤런당 14.1센트에서 18.4센트로 인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
- 이에 따른 財政赤字減縮效果는 향후 5년간 4,96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美 聯邦政府의 總負債는 1998년에 4조7천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이와 같이 클린턴의 景氣浮揚政策이 당초 예상만큼 강력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의 短期的인 景氣指標도 불안하므로 美國經濟의 回復勢는 당분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됨.

- CEA는 1993年 經濟成長率을 당초 예상치보다 下向調整하여 2.1%로 전망하고 있으며, FED도 2.5%내외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음. 한편 WEFA와 DRI는 각각 2.9%와 2.7%의 成長率을 전망하고 있음.

- 그러나 美國經濟는 계속해서 회복세를 유지할 수는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景氣浮揚의 걸림돌인 金融壓迫 現象이 점차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앞으로 住宅建設 景氣浮揚과 企業의 投資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최근 美기업들은 은행으로 부터의 차입을 통한 資金調達 方法에서 벗어나 商業어음(Commercial Paper)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 한편 미국 총 수출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과 日本市場의 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미국의 수출 증가율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수입이 다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貿易赤字가 惡化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앞으로 가장 성장전망이 밝은 부문은 서비스部門의 輸出로써 특히 금융 및 보험업, 항공운수업, 컴퓨터 관련 서비스부문의 수출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총수출의 30%를 차지하는 서비스部門의 輸出成長은 지난 6년간 매월 약 24,000명의 고용을 창출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현재 약 350만명의 미 국민이 서비스部門 輸出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고 있음.

## 2. 日本經濟

### (1) 最近 景氣動向

—80년대 중반이후 戰後 두번째로 긴 景氣擴大 국면을 맞았던 일본경제는 91년 下半期 부터 경기하강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하였으며, 금년들어서는 경기 하락이 거의 低點에 도달하였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으나 침체국면은 계속되고 있음.

○92년의 實質經濟成長率은 호황기였던 88-91년의 연평균 5.3%에 비해 크게 낮은 1.5%의 성장에 그쳐 74년도 이후 最低의 증가율을 나타냈음.

○금년 1-3월기의 실질경제성장률은 결산기를 앞둔 기업의 판매촉진 등에 힘입어 前期對比 0.6%, 年率換算으로 2.3%를 기록 작년 10-12월기의 제로성장보다는 증가하였음. 그러나 4-6월기와 7-9월기의 성장률은 소폭이나마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表 9〉 日本의 主要經濟指標

區 分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實質經濟成長率	5.2	2.6	4.3	6.2	4.8	5.2	2.0	1.5
産業生産增加率	3.7	-0.2	3.4	9.5	6.1	4.6	1.7	-6.1
失 業 率	2.6	2.8	2.8	2.5	2.3	2.1	2.1	2.2
消費者物價上昇率	2.0	0.6	0.1	0.7	2.3	3.1	3.3	1.6
換 率(엔/달러)	200.6	160.1	122.0	125.9	143.4	135.4	125.2	124.7
貿易收支(10억달러)	61.6	101.6	94.0	95.3	70.0	69.8	103.3	132.4
經常收支(10억달러)	55.0	94.1	84.5	77.3	53.4	33.7	72.6	117.6

資料: '85~'91은 總務廳 統計局, 「日本統計月報」, 各年판.

'92년은 日本銀行調查統計局, 「經濟統計月報」, 日本經濟新聞 등.

— 일본의 景氣가 不振한 주요원인은 국민총생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個人消費, 民間設備投資 등이 지난 호황기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國民總生産의 약 60%를 차지하는 個人消費는 92년도(會計年度 기준:92.4-93.3)에 前年對比 1.5%의 증가에 그쳐 90, 91년도의 4.4%, 4.3%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금년중에 개인소비의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國民總生産의 약 20%를 차지하는 民間設備投資는 호황기인 1988~90년 기간중에는 민간제조업의 機械受注가 年平均 15%씩 크게 增加하였으나 91년도에는 前年對比 -4.8%, 92년 -15.9%를 기록하였으며 금년도에 들어와서도 큰 폭의 감소추세는 개선되지 않고 있음.
- 住宅建設은 1991년도에는 前年度對比 약 20%가 減少하였으나, 92년도의 신설주택 착공호수는 91년도 실적인 134만호를 크게 웃도는 142만호를 기록하여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는 추세에 있음.

한편 日本政府는 景氣浮揚을 위해 昨年에 중앙과 지방정부의 공공투자 확대, 재정투융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두차례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였으며 금년에도 지난 4월 사업규모 약 13.2兆엔에 달하는 종합경제대책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개인소비의 촉진을 위해서는 소득세의 減免 등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음.

失業率은 호황기였던 90, 91년에는 2.1%까지 下落하였으나 경기가 침체국면에 들어간 92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금년 5월에는 89년 5월 이후 최고수준인 2.5%를 기록하였음.

○최근 기업의 新規採用도 크게 減少하고 있으며 지난 5월의 求人/求職比率은 0.81로 91년, 92년의 1.34, 1.0배에 비해 크게 낮아지는 추세에 있음.

消費者物價는 92년 1.6% 상승에 그쳐 好況期였던 90, 91년의 3.1%, 3.3%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금년 들어서도 1%를 약간 웃도는 수준에 머물고 있음.

○앞으로도 경기의 급속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고 엔高에 의한 輸入物價의 하락, 금리의 현 수준 유지가 전망되어 物價는 현재의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한편 90년에 635억달러까지 하락하였던 貿易收支는 경기침체로 인한 輸入의 減少, 엔高에 의한 달러표시 輸出金額의 증가 등으로 黑字가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금년의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작년수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92년의 무역수지는 1,320億달러 黑字로 사상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금년 上半期중의 무역수지는 戰後 최고수준인 574億달러(통관기준)를 기록하였음.

## (2) 景氣沈滯의 背景

### 〈거품經濟의 崩壞〉

— 일본의 景氣가 91년말 이후 下落하기 시작하여 최근까지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직접적인 원인은 장기간의 호황기에 급등하였던 地價, 株價의 급락에 의한 거품경제의 崩壞가 證券, 不動産, 銀行業界의 업적부진과 그동안의 경기확대를 주도하였던 개인소비, 기업의 설비투자, 주택투자를 위축시켰기 때문임.

○ 가장 심각한 문제는 個人消費가 극히 부진하여 백화점, 슈퍼마켓의 賣上高가 호황기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에 있으며 자동차 등 耐久消費財의 판매도 크게 부진한 상태에 있다는 점임.

○ 또한 민간기업의 設備投資도 개인소비 부진, 부실채권 증가에 의한 은행의 신용창조 능력 약화 등으로 企業의 投資心理가 크게 萎縮되고 있으며 資産價値 하락에 따른 재무상태의 악화로 設備投資를 늘리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음.

### 〈景氣浮揚策의 限界〉

— 한편 日本政府는 92년 初부터 중앙과 지방정부의 公共投資 擴大, 財政投融資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景氣浮揚策을 실시하였으나 이것이 個人消費의 본격적 확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거품경제의 再現 우려로 더 이상의 巨視經濟政策 추진도 어려운 입장에 있음.

○ 특히 92년3월의 緊急經濟對策, 同年 8월의 綜合經濟對策에 이어 93년 4월 총규모 13.2兆엔에 달하는 종합경제대책의 실시로 93년도중 財政收支는 86년 이후 처음으로 GNP의 1% 수준의 赤字(94년도 2% 예상)를 기록할 전

망입.

〈엔高現象의 深化〉

—또한 일본의 과도한 貿易黑字 擴大를 배경으로 금년 2월 이후 엔貨價値는 急騰하여, 작년말까지 달러당 124엔을 유지하였던 엔貨는 최근 100엔대로 급격하게 상승하여 昨年末 對比 20% 가깝게 切上되었음.

○이러한 엔貨의 급등이 企業의 收益惡化를 초래하여 投資心理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음.

—이러한 엔貨急騰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기인함.

○첫째, 세계 각국에 대해 日本의 貿易收支黑字가 일방적으로 擴大되면서 이에 따른 構造調整 壓力이 엔貨 상승을 가속시키고 있음. 美國 등 주요 선진국의 貿易收支 赤字가 1992년부터 다시 擴大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의 貿易收支 黑字는 1992년 1,326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금년들어서도 일본의 貿易收支 黑字는 增加가 계속되어 7월까지의 累計가 691억 달러로 사상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이로 인해 금년 일본의 貿易收支 黑字는 작년수준을 凌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둘째, 유럽통화의 統合과정에서 獨逸 마르크貨의 高金利 유지로 최근 여타 국가의 유럽換率調整裝置(ERM)에서 허용하고 있는 상하 2.25%의 換率變動幅 유지가 어려워짐에 따라 換率變動 許容幅이 상하 15%로 확대되었음. 이와 같은 움직임은 유럽 通貨統合計劃의 장래를 否定的으로 보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유럽外換市場의 混亂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럽외환시장의 投機資金이 엔貨의 買入으로 몰려 이것도 엔貨의 上昇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세째, 주요 선진국간 엔貨의 平價切上 必要性에 대한 공감대가 최근의 엔

貨 價値上昇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즉 美, EC 정책당국자는 기본적으로 日本의 貿易收支 黑字를 縮小시키는 데 엔貨 切上이 效果的이라는 견해를 같이하고 있으며 최근의 급격한 엔貨 切上에 대해서도 이를 容認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음.

### (3) 향후 展望

- 향후 日本經濟의 전망에 대해서는 下半期부터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景氣의 본격적인 回復을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현재 지배적임.
- 일본의 民間經濟研究所들은 금년 하반기중 엔貨의 切上效果가 본격화되면서 設備投資不振, 消費萎縮을 가져와 失業率이 높아지고 景氣의 沈滯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함.
- 이는 무엇보다도 個人消費 擴大가 극히 부진하며 또한 企業의 收益惡化 등으로 인하여 設備投資調整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실제로 향후 景氣를 예측해 주는 景氣先行指數도 지난 2월에는 84.6%까지 기록하여 경기가 회복되는 듯이 보였으나, 5월에는 다시 景氣의 회복· 하락의 分岐點인 50이하로 떨어졌음.
- 金融機關 또한 新規投資를 개척하려는 노력을 증대시키고는 있으나, 종래의 金融緩和期보다는 融資에 신중한 자세를 견지할 것으로 예상됨.
- 經濟協力開發機構(OECD)도 개인소비의 부진, 製造業의 設備投資 감소와 商業用 건물 등에 대한 投資不振으로 93년중 일본의 경제성장은 1.0%에 그칠 것으로 전망함.
- 需要項目別로는 政府의 固定資本에 대한 投資는 14.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個人消費의 증가가 1.0%에 그치고 民間設備投資(비주택부문)는

4.2%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經濟協力開發機構는 그러나 내년에는 成長率이 3.3%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음.

일본의 新政府는 이와 같은 景氣沈滯에서 벗어나기 위해 內需擴大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되나, 新內閣의 過渡性, 脆弱性 및 政策方向의 不確實性 등이 景氣浮揚策의 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新政府는 財政收支 악화로 인하여 財政擴大보다는 內需擴大를 위한 金融緩和政策과 規制緩和, 그리고 國民生活水準의 향상을 위한 稅制改革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政局不安이 이어져 政府豫算의 집행이나 公共事業발주가 늦어질 경우 일본의 景氣回復은 그만큼 늦어질 수도 있음.

<表 10> 向後 日本經濟의 展望

	92년	93년			94년		
		NRI	OECD	WEFA	NRI	OECD	WEFA
實質GDP成長率(%)	1.5	1.1 <sup>1)</sup>	1.0	1.8	2.0 <sup>1)</sup>	3.3	3.8
失業率(%)	2.2	2.7	2.5	2.4	-	2.6	2.4
消費者物價上昇率(%)	1.6	1.0	1.6	1.7	1.1	1.7	2.3
貿易收支(10억달러) <sup>2)</sup>	111.0	151.9	149.0	-	162.8	159.0	-
經常收支(10억달러)	117.6	-	139.0	137.3	-	150.0	116.7

註: 1) 實質GNP成長率

2) 通關基準

資料: OECD, *Economic Outlook*, June 1993.

WEFA, *World Economic Outlook*, July 1993.

Nomura Research Institute, *Capital Market Trends*, July 1993.

엔貨의 急上昇에 대해 일본정부는 각종 規制緩和 등을 포함한 輸入擴大策을 모색중에 있으나, 엔貨가 상승할 수 있는 基本條件에 큰 變化가 일어나지 않

는 한 엔貨는 당분간 달러당 100엔 정도의水準에서 強勢基調를 유지할 것으로 展望됨.

-이러한 엔貨의 강세는 日本의 輸出物量의 增加를 억제할 것이지만, 달러貨 표시 輸出의 증가로 貿易收支黑字 및 經常收支黑字는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대부분의 經濟豫測機關들은 금년도 日本의 貿易黑字額이 1,500억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3. EC經濟

#### (1) 最近 景氣動向

-1990年 下半期以後 本格的인 景氣鈍化를 겪어온 EC經濟는 1992年 下半期以後 마이너스 成長率을 기록하는 등 급격한 沈滯局面에 진입하였음.

○91年과 92年에 각각 1.4%와 1.1%의 낮은 成長率에 그친 EC의 實質 GDP는 93년에는 0.4%의 減少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75年이후 최초의 마이너스 成長임.

-EC 各國의 經濟成長이 全般的으로 不振相을 나타내는 가운데 國別 成長率의 隔差는 縮小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高成長國인 獨逸은 統獨特需가 증식됨에 따라 급격한 景氣鈍化를 겪고 있는 반면, 低成長國인 英國은 長期沈滯를 탈피하고 景氣回復局面에 進入하여 있음.

○그밖의 EC 國家들은 1-2%(92年中)의 낮은 成長率을 기록하고 있음.

需要項目別 成長趨勢를 보면 모든 項目이 저조한 가운데 특히 民間消費의 不振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1985-90年中 年平均 3%의 伸張率을 보였던 民間消費는 91年 以後 점차 둔화되었으며 93년에는 0.2% 減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는 높은 인플레이率, 고용감소,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실질가처분 소득의 급격한 減少에 기인한 것임. 또한 소비자의 신뢰도도 80年代初 이래 가장 낮은 수준에 있어 消費萎縮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投資需要도 80年代 後半의 好況이 끝나면서 低調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景氣不振, 높은 實質金利와 投資收益率의 低下, 政治·經濟的인 不確實性 등에 의해 영향받은 것임.

이와 같은 EC의 景氣沈滯는 雇傭事情의 급격한 악화로 나타나고 있음. EC의 고용은 1992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1983年 이후 최초의 減少임.

○이에 따라 1993年中 EC의 失業者數는 1,700萬名에 달할 것이며 失業率은 11.5%로서 史上最高水準인 1985年の 10.8%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景氣沈滯의 持續과 金融緊縮政策의 영향으로 EC의 物價는 全般的인 安定勢를 보임. 民間消費 디플레이터의 상승률은 91年の 5.4%로부터 92年 4.6%, 93年 4.2%로 하향추세를 나타냄.

EC의 經常收支는 91年 이후 GDP의 1% 內外 規模의 赤字를 기록하는 수준에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냄.

## (2) 景氣沈滯의 要因

### 〈世界經濟의 不振〉

— 80年代 後半의 好況이 끝나고 90년부터 시작된 世界經濟의 鈍化에 따라 世界交易이 크게 萎縮됨으로써 EC의 輸出이 不振相을 나타냄. 89年과 90年에 약 7.6%와 6.9%에 달했던 EC의 輸出物量 增加率은 91年 5%, 92年에는 3.7%의 增加에 그침.

— 또한 EC의 名目實效換率이 89년부터 92年 사이에 10% 이상 平價切上 된 것도 EC의 輸出競爭力을 弱화시킨 要因이 됨.

### 〈景氣循環的 要因〉

— 80年代 後半에 EC經濟는 一大好況을 누린 바 있음. 86-90年中 年平均 成長率은 3.2%였으며 國內需要의 실질증가율은 年平均 3.9%에 달하였음. 특히 市場統合에 대비한 투자가 왕성하여 그 年平均 增加率은 5.9%에 달하였음.

— 이와 같은 高成長템포는 EC의 長期的인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것으로서 뒤이어 景氣循環的인 側面에서의 成長鈍化가 불가피했던 것임.

○ 특히 市場統合에 대비한 投資가 대부분 完了됨에 따라 投資增加率이 91年 -0.2%, 92年 0.1%의 低調한 수준에 머무름.

○ 다만 統獨에 따른 特需로 景氣沈滯의 시기가 다소 늦춰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EC經濟에 나타난 몇가지 巨視的 狀況이 대부분의 會員國으로 하여금 緊縮的인 經濟政策을 추진하게 함으로써 景氣沈滯를 가속화 시킴.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86-88年中 年平均 3.7%로부터 1989-91年中에는 年平均 5%로 높아짐.
- 賃金上昇率도 1987-89年の 年平均 6%미만으로부터 90년에는 7.5%로 가속 화됨.
- 一部國家에서 經常收支 赤字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増加함.

—또한 英國과 덴마크 등 一部國家에서는 家計와 企業의 과다한 부채 때문에 총수요가 더욱 위축됨.

#### 〈EC勞動市場의 構造的 問題點〉

—EC의 실업률이 추세적으로上昇하고 있는 것은 최근의 景氣沈滯에 의해 영향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10%가 넘는 餘他國에 비해 높은 失業率은 EC 노동시장 특유의 構造的인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됨.

- EC의 失業率 推移를 보면 83-92年中 EC의 失業率은 平均 9.5%에 달했음.
- 그러나 60년부터 74년까지 EC의 失業率은 年平均 2.7%로서 美國의 5%에 비해 매우 낮았음.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졌던 75년에도 세계각국의 실업률이 상승하는 가운데 EC의 실업률은 4.4%로서 美國의 8.4%를 크게 밑돌았음.
- 그러나 76년이후 EC의 실업률은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냄. 美國과 EC가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하였던 90年中 美國의 실업률은 5.5%였는데 비해 EC는 7.9%의 실업률을 기록함.

—이와 같은 高失業을 야기하는 EC 노동시장의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지적됨.

- 好況期에는 生産性的 향상이 신속하게 임금의 상승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기업들은 노동력을 代替하기 위한 투자를 증가시키거나 생산설비의 이전을 위한 해외직접투자를 增大시킴으로써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고 실업문제가 악화됨.
- 景氣鈍化期에는 需要가 不振한 가운데 임금은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企業들은 근로자의 解雇措置를 취함.

### 〈統獨의 후유증과 EC의 全般的인 高金利〉

- 統獨以後 西獨은 莫大한 규모의 公共借入을 통해 조달한 資金을 舊東獨地域의 再建을 위해 支出함으로써 總需要의 急激한 팽창을 초래함. 90年 下半期와 91年 上半期中 西獨地域의 實質 GDP成長率은 거의 6%에 달하였음.
  - 또한 여타 EC會員國들의 GDP도 統獨의 영향으로 平均 약 0.5%의 추가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西獨地域의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고성장은 노동시장과 財貨市場의 需給不均衡을 야기하였으며 이는 賃金과 物價의 急激한 상승으로 나타남.
  - 賃金上昇率은 1987-89年中의 年平均 약 3%로부터 90年 4.7%, 91年 5.8%로 가속됨.
  - 인플레이율은 4%臺에 달함.
- 인플레이와 그 기대심리가 만연함에 따라 獨逸의 短期金利가 急上昇함.
- 獨逸의 金利上昇으로 마르크貨가 強勢를 보이게 되자 EMS 환율조정장치(ERM)下에서 자국통화의 가치를 방어해야 하는 여타 회원국도 긴축적인 금융정책을 실시함으로써 EC各國의 金利는 全般的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됨.

- 1991年 12月 獨逸聯邦銀行이 公定割引率을 인상하자 대부분의 ERM 參加國들도 뒤이어 公定割引率을 引上함.
- 1992年 7月 獨逸聯邦銀行은 또다시 公定割引率을 사상 최고수준인 8.75%까지 引上함으로써 당시 必要性이 강력히 제기되었던 EC의 金利引下 분위기 조성은 그 실현이 어려워졌음.

—이처럼 獨逸의 高金利는 EC全域으로 파급됨으로써 극심한 景氣不振에 처해 있는 EC會員國들의 경기부양정책의 실시를 저해하고 있으며 유럽外換市場의 동요를 초래함.

#### 〈外換市場의 혼란과 不確實性的의 增大〉

- 92年 7月 獨逸의 公定割引率 引上 이후 마르크貨의 超強勢가 나타나자 ERM의 환율변동폭 유지가 어려워진 英國과 이탈리아는 92年 9月 ERM을 잠정 탈퇴하기로 決定함.
- 최근 EC는 ERM의 환율변동허용폭을 종전의 상하 2.25%(일부국가 6%)로부터 상하 15%(獨逸과 네덜란드는 2.25%)로 확대하는 조치를 취함.
- 또한 덴마크에서 한 때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비준에 대한 國民投票(92年 6月)의 결과가 否決로 나타나고, 프랑스에서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가결되었으며 英國에서는 최근까지도 議會에서 이 조약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
- 이와 같은 움직임은 유럽통합계획의 장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경제주체들에게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킴으로써 EC경제 침체의 한 要因으로 작용함.

## (3) 向後 展望

## 〈低成長·高失業 持續〉

- 아직까지 EC經濟의 회복을 뒷받침할 만한 要因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短期的으로 볼 때 EC經濟의 成長展望은 비관적인 상태임.
  - 금년 1/4分期中の 설비가동율, 산업생산, 소매판매액 등 경제지표들은 부진한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이 추세는 2/4分期에도 지속됨.
  - 금년 5月 실시된 서베이에 따르면 소비자 및 기업의 신뢰도도 저조한 실정임.
  
- EC經濟의 沈滯는 94年初까지 계속되다가 94年中盤 이후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임. EC經濟의 회복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要因에 의해 主導될 것임.
  - 會員國의 金利, 특히 短期金利의 추가적인 인하
  - 世界經濟의 成長回復에 따른 世界貿易의 擴大
  - EC의 全般的인 競爭力 向上
  - 消費者 및 企業 신뢰도의 제고
  
- 특히 최근 ERM의 환율변동폭이 擴大됨에 따라 ERM 參加國의 金利引下 여력이 발생함으로써 경기회복의 시기가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음.
  
- 그러나 EC 景氣回復의 幅은 그리 크지 않고 완만한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임.
  - 이는 EC의 主要交易相對國의 GDP와 輸入이 완만한 회복세에 그칠 것으로 보여 海外與件이 그리 큰 호재로 작용할 것 같지 않고
  - 실질임금의 정체, 고용의 급격한 감소, 增稅 등의 영향으로 실질가처분 소

특이 1993-94年中 減少를 기록함으로써 消費需要의 급격한 增大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 설비투자도 國內 및 海外需要가 저조한 상황에서 설비가동률이 낮기 때문에 크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임.
- 다만 건설투자는 최근의 장기금리 하락에 힘입어 비교적 好調를 보일 것으로 展望됨.

- EC집행위원회는 EC의 실질GDP가 93年中 0.4%의 감소(75年이래 최초의 감소)를 나타낸 다음 94년에는 1.3%의 成長率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음.

- 한편 景氣沈滯의 파급영향으로 EC의 고용사정은 크게 악화되고 있음. EC집행위원회에 따르면 93年中 EC의 실업률은 11.5%에 달하여 사상 최고수준인 85年の 10.8%를 상회할 것이며, 94년에는 더욱 높아져서 12%에 육박할 것으로 보임.

#### 〈物價의 安定〉

- EC의 物價는 總需要萎縮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安定勢를 나타낼 전망이다. 92年中 4.6%에 달했던 EC의 인플레이率(民間消費 디플레이터 기준)은 93年 4.2%, 94年 3.8%로 점차 下落할 것으로 보임.

- 景氣沈滯 이외에도 賃金 및 單位勞動費用의 安定이 인플레이 鈍化의 要因으로 作用하게 될 것임.

- EC의 賃金上昇率은 92年の 5.9%에서 93年과 94년에는 각각 4%로 下落할 것으로 보임. 특히 獨逸, 스페인, 이태리, 포르투갈, 英國 등에서 93年中 賃金上昇이 두드러지게 鈍化될 전망이다.

- 한편 고용의 감소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향상(93년과 94年中 각각 1.3%씩) 됨에 따라 單位勞動費用은 3% 内外의 上昇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60年代 후반 이래 가장 낮은 上昇率임.

### 〈改善 어려운 國際收支〉

— 급격한 景氣沈滯에도 불구하고 EC의 貿易收支 및 經常收支는 改善되기 어

〈표 11〉 EC의 主要經濟指標 推移 및 展望

		90	91	92	93	94
實質成長率 (%)	E C	2.8	1.4	1.1	-0.4	1.3
	獨逸 <sup>1)</sup>	5.1	3.7	2.0	-2.0	0.5
	프랑스	2.2	1.1	1.3	-0.7	0.8
	이탈리아	2.1	1.3	0.9	0.0	1.5
	英國	0.5	-2.2	-0.6	1.5	2.5
失業率 (%)	E C	8.3	8.7	10.1	11.5	11.9
	獨逸 <sup>1)</sup>	4.8	4.2	7.5	9.3	10.3
	프랑스	9.0	9.5	10.0	11.5	12.0
	이탈리아	10.0	10.0	10.2	10.7	10.8
	英國	7.0	9.1	10.8	11.5	10.8
物價上昇率 <sup>2)</sup> (%)	E C	4.5	5.4	4.6	4.2	3.8
	獨逸 <sup>1)</sup>	2.7	3.9	4.6	4.6	3.4
	프랑스	3.2	3.2	2.4	2.5	2.4
	이탈리아	5.2	6.9	5.4	5.2	5.1
	英國	5.3	7.2	4.8	4.1	4.0
經常收支 (對GDP比重, )	E C	-0.3	-0.5	-1.1	-1.1	-0.9
	獨逸 <sup>1)</sup>	3.5	1.2	-1.4	-1.6	-1.4
	프랑스	-0.8	-0.5	0.1	-0.1	-0.0
	이탈리아	-1.4	-1.8	-2.1	-1.4	-0.6
	英國	-4.2	-1.8	-2.0	-2.5	-2.3

註: 1) 91년까지는 西獨기준, 92년부터는 統獨 기준

2) 民間消費 디플레이터 기준

資料: EC Commission, *European Economy, Supplement A*, June/July 1993.

려울 것으로 보임.

- 貿易收支는 GDP의 0.3% 内外, 그리고 經常收支는 GDP의 1% 内外의 水準을 유지할 展望임.
- 景氣沈滯에 따른 輸入需要의 鈍化에도 불구하고 EC의 國際收支가 改善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EC의 國際競爭力이 취약하다는 것을 시사함.

—國別로는 統獨이후 급격한 貿易 및 經常收支의 惡化를 겪은 獨逸의 경우 더 이상의 惡化는 없겠지만 그 改善의 기미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는 기대되지 않음.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經常收支는 상당폭 改善될 것으로 보이는 한편, 포르투갈의 經常收支赤字는 더욱 擴大될 것으로 보임.

## 4. 中國經濟

### (1) 最近 景氣動向

- 中國 經濟는 92년에 12.8%의 높은 成長率을 기록한 데 이어, 93년 상반기중 전년 동기대비 13.9% 성장함으로써 高度成長을 실현하고 있음.
- 中國 經濟는 80년대 중반의 高速成長을 거친 후 1989-91년의 艱難기간 중 크게 위축되었다가 92년부터 고속성장을 回復한 것임.
- 이러한 최근의 中國經濟 高速成長은 供給側面에서는 주로 工業生産의 急增으로, 需要側面에서는 주로 投資의 急增으로 설명할 수 있음.
- 92년 20.8%에 달했던 工業生産 增加率은 금년 상반기중 25.1%를 기록하였음.
- 固定資産投資 增加率은 경상가격 기준으로 92년에 37.6%를 기록하였고, 금

년 상반기중에는 61%에 이르렀음.

- 지속적인 急增趨勢를 보여 성장에 기여하던 輸出은 92년 상반기중 4.4% 증가에 그쳐 그 增加速度가 크게 둔화되었음.
- 반면 92년중 15.7% 증가에 그쳤던 商品小賣總額은 93년 상반기중 21.6% 증가하여 경기과열이 投資部門에 이어 점차 國內消費에 미치고 있음.

〈表 12〉

中國의 主要 巨視經濟指標

(단위: %)

	1984~86	1987~88	1989~91	1992	1993 상반기
實質經濟成長率	11.8	11.1	5.4	12.8	13.9
工業生産增加率	16.4	19.3	10.3	20.8	25.1
消費者物價上昇率	7.2	14.6	7.6	6.4	10.5
輸出增加率	11.7	23.9	14.8	18.2	4.4
輸入增加率	26.1	13.5	4.9	26.4	23.2

資料: 中國統計年鑑, 1993년 상반기 통계는 人民日報(1993.7.20).

— 이러한 中國 經濟의 高速成長은 이미 景氣過熱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인플레이와 貿易收支의 惡化로 나타나고 있음.

- 1990-1992년 기간중 안정세를 유지하던 全國 小賣物價指數는 금년 상반기중 10.5% 상승하였으며, 특히 大都市에서는 그 上昇率이 17.4%에 이르렀음.
- 價格改革의 실시와 投資急增으로 인하여 특히 에너지, 建資材(철강, 시멘트 등)의 價格上昇이 物價上昇을 주도하였음.

— 급속한 輸入增加(92년 26.4%, 93년 상반기 23.2%)에 따라 貿易收支도 92년 44억 달러 黑字에서 금년 상반기중 35억 달러의 赤字로 반전되었음.

— 93년 상반기부터 부분적인 경기진정책을 실시하던 中國 政府는 이와 같은

經濟過熱에 대응하여 7월에 들어 16개항의 구체적인 緊縮措置를 발표함으로써 본격적인 경기조절에 임하고 있음.

- 이 조치들은 經濟過熱의 主要因으로 평가되는 각 地方의 경쟁적인 投資擴大, 不動産·證券·外換에 대한 투기 성행,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가능케 하는 왜곡된 금융질서(탈법적인 私債發行, 규제회피를 위한 銀行의 非銀行 金融機關에 대한 대출) 등의 시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 조치들은 金利引上, 政府支出의 縮小 등 순수한 經濟政策的 요소와 더불어, 대출금 회수, 난립하고 있는 開發區 및 각종 不動産開發事業 整理, 승용차 輸入禁止 등 행정적 조치를 포함.
- 그러나 農業·社會間接資本 등 國家重點事業에 대한 資金支援保障, 對外開放의 지속적 확대 등도 발표되었음.
- 따라서 현재까지는 全面的인 緊縮이라기 보다는 부분적인 긴축과 부문간 資源再配分을 시도하는 調整政策의 성격을 띠.

## (2) 問題點

—中國 經濟는 그동안의 體制改革과 高度成長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構造的 問題를 안고 있음.

- 불완전한 市場化 改革에 따른 巨視調節體系의 미비로 진폭이 큰 景氣變動이 반복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
- 沿海地域(특히 東南 沿海地方)이 성장을 주도함에 따라 지역간 經濟水準의 隔差가 심화되고 있음.
- 改革過程中 權限이 확대된 각 地方은(특히 省) 경쟁적으로 自地域內의 投資擴大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重複·過剩投資와 地域保護主義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產業政策 실시와 資源의 地域間 合理的 配分을 저해하고 있음.

- 國有企業과 金融部門의 경우에는 改革의 효과가 未洽하여 효율성이 극히 떨어지고 있음.
- 中國 經濟의 高速成長으로 에너지, 교통, 통신망 등 社會間接資本의 부족이 심각하게 노정되고 있으며, 이는 高度成長의 지속에 결정적인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所得分配上의 불평등 심화와 官吏들의 부패가 심각한 社會問題로 등장하고 있음.

—政治的 次元에서 현재 89세인 最高指導者 鄧小平 死後의 指導層 繼承問題 등 中國이 과연 政治的 安定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鄧小平 死後 中國의 정치적 혼란과 지역간 경제적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말미암아 中國의 地域的 分列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하기도 함.

### (3) 向後 展望

—短期的으로 中國 經濟는 긴축정책의 실시에 따라 成長率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임.

—93년 하반기중 中國 經濟는 8~9% (상반기보다 약 5% 포인트 하락) 성장하여 93년 전체로는 10~11% 成長을 이룰 것으로 예상됨.

- 93년중 全國 小賣物價指數는 10~11%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輸出은 적극적인 수출드라이브에 따라 10~12% 증가(상반기 4.4% 증가)하는데 반해 輸入增加率은 약 20%(상반기 23.2%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94년에도 經濟過熱을 억제하기 위한 調整政策이 지속되어 中國經濟는 8%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全國小賣物價 上昇率은 7~8%에 이를 것으로 보임.

長期的으로 中國은 앞서 지적한 經濟的 制約要因과 政治的 變數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政治的 安定과 지속적인 高度經濟成長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中國은 지난 14년에 걸친 改革·開放政策의 성공적 실시에 따라 市場化 改革이라는 정책기조가 지속될 수 밖에 없으며, 地方分權 問題도 地方의 獨立에까지 이를 가능성은 매우 낮음.

○소위 改革派와 保守派간의 입장 차이는 크지 않으며, 어느 측이든 신세대 지도자가 國民生活 向上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고 權力을 維持하는 것이 不可能함.

中國의 높은 貯蓄率(35% 이상), 거대한 內需市場, 中國이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人的·物的資源과 높은 基礎技術 수준 등을 감안하고, 아직 中國의 一人當 國民所得 水準이 비교적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中國은 상당기간 동안 연평균 8% 정도의 높은 成長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中國의 거대한 內需市場과 대만·홍콩을 포함하는 華僑經濟圈의 존재는 外國資本 및 技術 誘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함.

## 5. 러시아經濟

### (1) 最近 景氣動向

- 러시아 經濟는 작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아울러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도 계속되고 있으나, 러시아 經濟는 이제 최악의 상태에서는 벗어나는 듯함.
- 國內總生産을 기준으로 할 때, 러시아 경제는 92년에 19% 하락하였고, 금년 1/4분기중 전년 동기대비 16-18% 감소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중에는 14~16% 후퇴하였음.
  - 다른 巨視經濟指標인 純物的生産은 92년에 20% 감소하였고, 금년 1/4분기와 상반기중에 전년 동기대비 각각 19% 및 17.2% 하락하였음.
  - 工業生産도 92년에 18.8% 하락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중 18%의 감소를 기록하였음.
- 이러한 生産減少는 對外交易部門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러시아의 對外交易은 92년에 23% 감소하였고, 금년 1/4분기 및 상반기중에는 작년 동기대비 각각 36% 및 23% 감소하였음.
- 이같이 러시아의 生産減少現象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 下落의 速度는 둔화되고 있으며, 일부 品目은 增加勢로 반전되고 있음.
  - 工業生産의 月別推移를 살펴보면, 작년말에는 月 20~25% 감소를 보이던 것이, 금년 1월에 22%, 2월에 19%, 3월에 17%, 4월에 16%, 5월에 18%, 그리고 6월에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금년들어 그 下落幅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추세임.

<表 13>

러시아의 主要 巨視經濟指標

(전년 동기대비, %)

	1992년	1993년	
		1/4분기	상반기
國內總生産 成長率	-19	-16~18	-14~16
純物的生産 成長率	-20	-19	-17.2
工業生産 增加率	-18.8	-19	-18
消費者物價指數	26배 <sup>1)</sup>	193 <sup>2)</sup>	344 <sup>2)</sup>
輸出 增加率	-25	-11	3
輸入 增加率	-21	-58	-49

註: 1) 91년 12월대비 92년 12월의 소비자물가

2) 92년 12월 소비자물가 = 100

資料: *Ekonomika i zhizn'*, 1993년 제4호, 17호, 31호.

○消費財生産의 경우, 작년에 15% 감소하였으나, 금년 상반기중 11% 하락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중 텔레비전, 라디오, 냉장고 등 일부 家電製品의 生産은 증가하였음.

92년 1월의 價格自由化 조치로 92년 12월의 러시아 消費者物價는 91년 12월에 비해 26배나 상승하였으며, 금년에도 높은 인플레가 지속되어 금년 6월의 消費者物價指數(작년 12월 물가지수=100)는 344를 기록하였음.

그러나 금년초에 超인플레가 우려되었던 러시아의 인플레도 최근 다소 鈍化現狀을 보이고 있음. 消費者物價는 금년 1월, 2월과 3월에 각각 27%, 26%, 21% 상승하였고 4월에는 상승률이 25%를 기록하였으나, 5월에는 물가상승률 19% 작년 9월 이래 처음으로 20% 이하를 기록하였으며 6월에는 20%에 달했음.

그 외에도 92년에 39% 감소했던 小賣流通量이 금년 상반기중 10% 증가하

였으며, 금년 상반기중에는 輸出이 3%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면이 나타나고 있음. 또한 러시아 經濟는 輸入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92년 이래 貿易黑字를 기록하고 있음.

-러시아 政府는 經濟안정을 위해 割引金利의 인상과 같은 緊縮政策과 財政赤字 축소를 위한 에너지 가격인상 등의 조치를 취했고, 인플레이 억제를 위해 貨幣改革을 시도하였으며, 최근 95년까지 러시아 經濟安定化 및 國營部分의 縮小를 골자로 하는 經濟計劃案을 발표하였음. 그 결과 루블貨도 최근 1달러당 1천 루블내에서 安定勢를 보이고 있음.

-그리고 이와 같은 어려운 經濟狀況 속에서도 民營化를 비롯한 經濟改革은 계속 추진되고 있음.

## (2) 問題點

-엘친 政府의 강한 改革意志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政府와 議會간의 對立으로 經濟改革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議會 및 保守派 官僚들의 반발로 大統領의 개혁조치 布告令은 때때로 議會에 의해 무효화되거나 執行過程에서 관료들에 의해 무시되고 있음.

-게다가 최근 憲法論爭에서 地方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改革派와 保守派의 경쟁으로 인해 地方政府들의 相對的 位相이 강화되었음. 이에 따라 앞으로 中央政府와 地方政府 및 地方政府들간 經濟權限을 놓고 갈등의 소지가 높음.

-또한 러시아 政府내에서도 改革派와 保守派간의 對立으로 經濟政策의 일관

성이 결여되어 있음.

- 이러한 러시아 政局의 불안으로 外國企業의 對러시아 投資는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外貨의 國外流出이 성행하고 있음.
- 舊蘇聯 債務償還에 관해 파리클럽 및 런던클럽과 債務償還延期에 합의하였으나, 금년내 30~35억 달러를 상환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음.

### (3) 向後 展望

- 러시아 經濟의 앞날은 무엇보다도 얼마나 빠른 시일내에 政局이 안정되느냐에 달려있다 할 것임. 또한 政府가 얼마나 一貫性있는 改革政策을 취해 나가느냐에 따라 다를 것임.
- 엘친은 최근 오는 9월에 總選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議會가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년 가을 러시아내 改革派와 保守派간의 극심한 對立이 예상됨.
- 최근 貨幣改革의 여파로 엘친의 人氣度가 크게 하락하였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代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엘친의 相對的 位相은 튼튼하다고 볼 수 있음.
  - 단, 保守派의 지속적인 반발과 經濟沈滯로 인한 國民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러시아 政府는 한편으로는 生産增大策을 모색하면서, 아울러 私有化를 비롯한 構造的 經濟改革을 병행하여 추진할 것으로 보임.
- 短期的으로 볼 때, 러시아 經濟는 금년에도 1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하반기에 가거나 회복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資源, 高級人力, 높은 科學技術 및 거대한 內需市場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經濟潛在力을 바탕으로 러시아가 長期的으로 經濟發展을 이룰 可能性은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됨.

## 6. 아시아 開途國 經濟

### (1) 最近 景氣動向

-70年代부터 고도성장을 기록하였던 아시아신흥공업국들(ANIEs)은 선진국의 불황으로 인한 수출부진과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한 구조조정과정으로 인해 80年代 후반부터 성장세가 둔화되었음.

- 외연적 성장유형에서 벗어나 집약적 성장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임.
- 특히 임금상승으로 인해 노동집약산업의 國際競爭力이 약화되었으며, 기술 및 자본집약산업으로의 이행은 아직 원활하지 못함.

-저임 및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ANIEs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동남아국가 연합(ASEAN) 국가들도 80年代 후반이나 90年代 초부터 그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둔화되기 시작함.

- 이는 ASEAN 國家間의, 혹은 중국과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제조업 부문에서의 구조조정이 시작된데에 기인함.
- 경제성장속도에 비해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이 느리게 진행됨.

-80年代 후반부터 ANIEs 국가들은 물가상승 압력 및 평가절상 압력을 받고 있으며, 무역수지의 악화현상을 보이고 있음.

- 정부의 효율적인 통제로 물가상승이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

〈表 14〉 아시아 개도국의 실질GDP 성장률 (단위: %)

	88	89	90	91	92
대 만	7.8	7.3	5.0	7.2	6.1
홍 콩	8.3	2.8	3.2	4.2	5.0
싱가포르	11.1	9.2	8.3	6.7	5.8
말레이시아	8.9	9.2	9.8	8.7	8.0
태 국	13.2	12.0	10.0	7.9 <sup>a)</sup>	7.2 <sup>a)</sup>
인도네시아	5.8	7.5	7.1	6.6 <sup>a)</sup>	5.7 <sup>b)</sup>
필 리 핀	6.3	6.0	2.7	-0.7	0.0

註: a) 잠정치

b) EIU 추정치

資料: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Various Issues), 1993.

각한 것은 아니나, 물가상승의 원인이자 결과인 임금인상이 ANIEs 국가들의 비교우위산업인 노동집약산업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림.

- ANIEs中 싱가포르와 대만은 對美 무역수지흑자에 따른 미국의 압력으로 지속적인 평가절상을 단행함.
- 대만을 제외한 ANIEs의 무역수지는 80年代 후반부터 적자폭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80年代 후반이후 ASEAN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평가절하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시도를 보임.

- 하지만 필리핀과 태국은 80年代 후반이후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꾸준히 무역수지흑자를 기록하고는 있으나 그 흑자폭이 줄어들고 있음.
- 이는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자본재 수입의 급증에 기인함.

## (2) 問題點

- ANIEs 및 ASEAN 국가들은 수출신장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해 왔으므로 기존의 선진국 시장에 보호주의적인 성향이 더해지는 것이 상당한 애로사항으로 부각됨.
  - 가장 주요한 시장인 미국시장이 국내고용보호를 위하여 교역장벽을 높이고 있으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추진도 ANIEs 및 ASEAN 국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큼.
  - EC의 완전경제통합의 진행은 아시아 국가들의 유럽으로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
- ANIEs 및 ASEAN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들 수 있음.
  - 격화되는 국제경쟁 속에서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수출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하여야만 하며, 이를 위하여 선진국의 기술이전 및 직접투자 증대가 시급한 실정임.
  - 중국의 저임산업부문에 외국인 직접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므로, ASEAN 국가들은 투자재원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산업구조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투자의 확대가 중요한 요소로 부각됨. 특히 ASEAN 국가들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이 확충되지 않는 한, 곧 성장의 한계에 달할 것임.

## (3) 向後 展望

- ANIEs의 향후 5年間 경제성장을 예측해 보면, 80年代 후반부터 90年代 초

반에 걸친 성장세의 둔화에서 벗어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지속할 것임.

- 하지만 이는 70年代부터 80年代 중반까지의 고도성장 유형과는 다른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일 것임.
- 80年代 후반부터의 구조조정이 계속될 것이므로, 자본재 수입에 따른 무역 수지의 적자는 그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中國과의 경제관계 진전 및 경쟁관계 양상이 ANIEs의 성장에 영향을 끼칠 것임.

ASEAN 국가들은 90年代 초반보다는 나은 경제성장을 보일 것이나 구조조정과정이 계속됨에 따라 여러가지 성장의 애로에 직면할 것임.

- ASEAN 국가들은 공업화에 따르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으며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전력공급 확대나 고속도로 건설 등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것임.

〈表 15〉 아시아 개도국의 실질 GDP 성장률에 대한 예측 (단위: %)

	93	94	95	96	97
대 만	6.1	6.5	5.9	6.7	6.5
홍 콩	5.8	6.0	5.6	5.2	4.3
싱가포르	7.2	6.7	6.8	6.4	6.7
말레이시아	7.5	8.4	8.3	8.1	7.7
태 국	7.4	9.0	10.8	10.4	8.8
인도네시아	6.1	7.2	8.1	7.9	7.1
필 리 핀	1.4	4.5	6.0	6.2	6.1

資料: The WEFA Group, *Asia Economic Outlook*, July 1993.

· ASEAN 국가간에 결성된 AFTA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EAEC는 아시아 개

도국의 경제에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아시아 지역内の 경제협력 움직임에서 배제된 미국이 보복적인 조치로 교역장벽을 높이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따라서 아시아 지역 경제간의 경제협력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은 적음.

- ANIEs 국가들의 환율은 93~97年間 상당히 안정적인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과 싱가포르의 경우, 평가절상이 예상되기는 하나 그 속도는 80年代 중반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될 것이며, 홍콩의 환율은 계속 달러화에 고정되어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필리핀을 제외한 ASEAN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무역수지의 호전을 보일 것임.

- ASEAN中 비교적 공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과거 ANIEs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평가절상 압력을 받게 될 것이나, 이러한 평가절상이 무역수지를 악화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음.
- 오히려 말레이시아는 고부가가치 상품의 수출확대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非 석유제품의 수출확대를 통해, 각각 무역수지흑자를 유지·확대시킬 것임.
- 다만 필리핀의 생산기반 확충 노력은 수입의 증가를 통해 무역수지적자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 Ⅲ. 우리經濟에의 示唆點

#### 1. 示唆點

—世界經濟의 전반적인 沈滯는 海外 輸入需要의 부진, 保護主義의 강화와 이로 인한 通商摩擦의 심화, 세계경제의 不確實性 증대 등 여러가지 否定的인 影響을 우리經濟에 미치고 있음.

##### (1) 海外 輸入需要의 不振

—世界經濟의 沈滯에 따른 輸入需要의 부진은 우리나라 輸出의 신장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금년중 世界貿易伸張率은 4% 대의 수준으로 예상 되는데, 이는 80년대말 好況期의 6-7%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특히 선진국의 景氣沈滯로 인하여 금년 상반기중 우리나라 輸出에서 미국, 일본, EC가 차지하는 비중이 50%이하로 떨어져 47.5%를 기록함.

—유럽국가들의 경우 景氣沈滯에 따른 전반적인 輸入需要의 둔화와 함께, 高失業으로 인해 雇傭을 중시하는 産業構造調整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특히 勞動集約的 제품의 輸入이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최근의 엔高는 우리나라의 對日輸出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나, 현재 日本景氣의 부진으로 우리의 對日輸出 增大效果는 단기적으로 크지 않을 것임. 더욱이 우리나라의 對日依存的인 産業構造로 인해 엔高는 對日輸入金額을 增加시켜 금년중 對日貿易赤字는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우려됨.

-또한 우리나라 기업은 그동안 中國景氣의 活況으로 中國特需를 누려왔으나, 中國정부의 緊縮政策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對中國 輸出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 (2) 保護主義의 強化와 市場開放 壓力

-선진주요국들은 景氣沈滯로 인하여 自國의 불만이 고조됨에 따라 自國의 이익을 강하게 추구하는 保護主義 성향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이와 함께 先進國의 우리나라에 대한 市場開放 壓力이 증대되고 있음.

-미국은 현재 만성적인 貿易赤字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과의 管理貿易 실시, 수퍼301조의 부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反덤핑 및 相計關稅 부과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크게 증가함.

-EC국가들도 유럽統合과 관련하여 外國人에게 불리한 규정 등을 도입함으로써, 여타국가와 마찰을 빚고 있음.

-한편, 각국의 保護主義 심화는 우리나라에 대한 通商壓力의 증대로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知的財産權 보호, 金融市場 개방, UR협상과 관련된 쌀市場 개방요구로 나타나고 있음.

## (3) 世界經濟의 不確實性 增大

-각국의 어려운 경제상황은 주요국의 經濟政策에 대한 協調體制를 약화시켜 왔으며, 美國과 日本에서의 新政府 출범에 따라 經濟政策方向이 아직 불투

명한 상태이므로, 이로 인하여 世界經濟의 不確實性이 아울러 증대되고 있음.

- 國際貿易環境도 선진국들이 自由貿易主義와 保護主義 사이에서 뚜렷한 정책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向後 改善 展望이 불투명한 상태임.

- 독일의 高金利 지속 등에 따른 EC국가들의 협조체제 약화는 유럽外換市場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으며, 유럽統合 일정에도 차질을 가져오고 있음.

- 또한 주요국의 협조체제 약화는 우루과이라운드協商의 타결 지연을 가져와 多者間 國際貿易秩序의 약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UR이후 시도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기 라운드의 내용과 추진전망도 현재 불확실한 상태임.

## 2. 우리의 對應方案

### (1) 投資增進을 통한 內需의 擴大

- 海外로부터의 輸入需要가 不振하고 國內的으로는 「新경제」의 고통분담 분위기속에서 消費增加가 크게 기대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 다소나마 國內景氣를 活性化하기 위해서는 投資의 擴大가 요구됨.

-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반적인 投資與件의 改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와 함께 고속전철과 신공항건설과 같은 대규모 社會間接資本에 대한 投資 등 公共投資의 早期執行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 (2) 經濟의 內實化

- 이와 같은 內需의 擴大가 物價上昇과 國際收支惡化로 이어지지 않도록 巨視經濟의 安定과 經濟의 內實化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景氣沈滯로 인한 세계 각국의 低인플레 추세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 商品의 價格競爭力 弱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賃金 및 物價上昇은 억제되어야 함.
- 또한 어려운 世界經濟 與件을 우리經濟의 構造調整을 위한 좋은 기회로 삼아 産業構造를 高度化하고 아울러 原價節減 등을 통해 經營을 合理化하는 노력이 요구됨.
- 특히 우리가 競爭力을 잃고 있는 分野는 後發開途國으로의 過감한 移轉을 추진하여 이 분야에 사용된 인력과 자본을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 이와 같은 努力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技術水準의 향상과 品質改善을 통해 우리나라 제품의 非價格競爭力을 強化시킴으로써, 다가올 世界經濟의 好況에 對備하는 姿勢가 필요함.

## (3) 經濟規制의 大幅的인 緩和

- 競爭 촉진을 통한 經濟의 效率性 增大를 위해서는 經濟規制를 대폭적으로 緩和하는 등 각종 經濟改革措置를 과감히 추진해야 하며, 특히 投資와 貿易 增進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規制는 조속히 改廢하여야 함.
- 資源의 效率的 配分을 위한 金融産業의 重要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金融

制度의 效率化를 위해서는 금융부문의 불필요한 規制를 조속히 緩和하고 金融制度의 自由化와 自律化를 하루 빨리 이루어야 함.

#### (4) 外國人直接投資의 積極誘致

—外國企業에 대한 부정적·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技術導入의 촉진과 國內産業構造의 고도화를 위해 外國人 直接投資를 적극 유치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知的財産權의 보호·강화, 外國人投資企業의 國內金融與件의 개선, 外國企業과의 제휴강화 등이 필요함.

—국내진출을 원하고 있는 外國企業의 경우, 國內産業構造改善과 競爭促進차원에서 이를 과감히 허용하고, 投資誘致團의 해외파견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특히 최근 日本國內企業들이 엔고에 따른 收益性惡化로 海外生産을 늘리려 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部品, 素材 등을 生産하는 日本企業들을 적극 誘致해야 할 것임. 우리나라가 유치 가능한 분야는 技術, 技能人力, 生産經驗의 축적 등에서 아세안 後發開途國에 비하여 유리한 條件을 가지고 있는 自動車 部品, 電氣·電子, 기계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됨.

#### (5) 對外協力の 強化와 新市場 開拓

—國家間的 貿易利益 擴大는 沈滯된 世界經濟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으므로, 自由貿易을 촉진하는 多者間·地域間 國際貿易秩序의 형성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주요국과의 經濟協力を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또한 주요 先進國의 景氣不振으로 인한 對先進國 輸出 부진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中國, 베트남 및 아시아開途國 등 급성장하는 新市場을 개척하는데 한층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公的開發援助(ODA)를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임.

## KIEP 發刊資料 案內

### ■ 政策研究

90-01	GATT 11條國 移行에 따른 政策課題와 對應方案 ('90.03)	金學洙
90-02	EC 經濟統合과 對外貿易政策의 變化 ('90.03)	閔充基
90-03	換率制度와 外換危險管理 ('90.05)	金宗萬
90-04	우루과이라운드 知的所有權 協商課題와 우리의 對應方案 ('90.05)	孫讚鉉
90-05	韓國經濟의 自由化 現況과 OECD 加入戰略 ('90.06)	金泰俊
90-06	ASEAN 主要國의 貿易·産業政策과 投資環境變化 ('90.09)	柳在元
90-07	우리나라의 對開途國 中長期 經濟協力 方案 ('90.10)	金學洙
90-08	美國通商政策의 中長期方向 ('90.10)	金南斗
90-09	多者間서비스 協商과 우리나라 建設産業의 國際化 ('90.10)	張義泰
90-10	日本企業의 海外直接投資와 國際化戰略 ('90.12)	徐相祿
91-01	美日經濟摩擦과 우리의 政策課題 ('91.01)	姜興求
91-02	主要換率變動의 特性和 政策示唆點 ('91.03)	金宗萬
91-03	EC 貿易構造의 變化 ('91.04)	金廷洙
91-04	美國金融市場의 構造와 規制制度 ('91.03)	李長榮
91-05	中國 經濟特區戰略의 評價와 韓國企業의 對應 ('91.04)	吳勇錫
91-06	蘇聯의 對外貿易 및 金融制度의 改革 ('91.04)	朴濟勳
91-07	中國의 外國人 直接投資 誘致와 韓國의 進出展望 ('91.04)	金時中
91-08	우리나라 서비스交易의 構造와 推移 ('91.04)	李相學
91-09	韓國·臺灣·日本의 換率變動과 輸出競爭 關係分析 ('91.05)	曹琮和
91-10	EC의 直接投資 環境變化와 對應方案 ('91.05)	閔充基
91-11	韓國의 對外經濟協力에 관한 政策課題와 方向 ('91.07)	金學洙
91-12	우리나라 세이프가드制度의 改善과 活用方案 ('91.08)	蔡 旭
91-13	우리나라 서비스産業의 生産性變化와 生産性的 國祭比較 ('91.08)	俞鎮守
91-14	舊東獨의 價格體系와 市場經濟體制로의 轉換 ('91.08)	裴眞永
91-15	우루과이라운드 金融서비스協商과 證券産業의 競爭力 제고방안 ('91.08)	金泰俊
91-16	폴란드 企業制度 改革과 直接投資與件 ('91.09)	洪裕洙
91-17	韓·美間 直接投資의 구조와 投資環境의 變化 ('91.09)	金南斗
91-18	한국·臺灣·日本의 産業政策과 産業構造調整 ('91.09)	柳在元
91-19	우리나라 株式市場 開放의 效果分析 ('91.10)	金宗萬
91-20	東北亞 經濟協力の 與件과 展望 ('91.12)	共同
92-01	東北亞 地域 貿易構造와 域內 輸出競爭力 比較 ('92.01)	鄭永祿

92-02	貿易관련 政策 및 制度의 현황과 改善方向 ('92.02)	共 同
92-03	統獨 1年の 경제적 評價와 展望 ('92.03)	裴眞永
92-04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① 日本의 貿易障壁 ('92.03)	俞鎮守
92-05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① 保險産業의 國際化戰略 ('92.03)	蔡 旭
92-06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② 原產地規程 ('92.03)	韓弘烈
92-07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③ 日本의 輸入品流通과 流通障壁 ('92.03)	趙炳澤 李永俊
92-08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② 會計서비스産業 國際化 推進方案 ('92.04)	金宗萬
92-09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③ 우리나라 海運産業의 國際化 戰略 ('92.06)	張義泰
92-10	러시아에서의 사유화 進展과 外國人 投資 與件 ('92.06)	朴濟勳
92-11	先進國의 對中 經濟交流 分析 ('92.06)	鄭永祿
92-12	中國의 企業集團 育成現況과 展望 ('92.06)	金益洙
92-13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④ 標準 및 檢査制度 ('92.07)	成克濟
92-14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⑤ EC의 貿易障壁 ('92.07)	閔充基
92-15	汎유럽經濟圈 形成의 展望과 影響 ('92.07)	金博洙
92-16	OECD 經常貿易外去來 및 資本移動 自由化規約과 韓國의 自由 化 現況 ('92.07)	金泰俊
92-17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⑥ 金融서비스 關聯 障壁 ('92.07)	李長榮
92-18	유럽金融統合과 EC金融市場 進出方案 ('92.07)	李在雄
92-19	東歐 經濟改革의 類型과 成果 ('92.07)	洪裕洙
92-20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④ 流通産業의 開放效果와 對應戰略 ('92.07)	申世敦
92-21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⑤ 廣告産業의 國際競爭力 提高方案 ('92.07)	李相學
92-22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⑦ 政府調達 關聯 障壁 ('92.08)	崔仁範
92-23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⑧ 美國의 貿易障壁 ('92.08)	金南斗
92-24	輸入先多邊化制度의 經濟的 效果 ('92.09)	共 同

92-25	東北亞經濟協力圈 形成을 위한 線形自由貿易地帶 構想과 그 期待效果 ('92.09)	孫炳海
92-26	UR 총점검 ('92.10)	共同
92-27	換率, 金利 및 貨金變動이 우리나라 輸出에 미치는 영향 ('92.10)	金宗萬
92-28	國內先物去來所 設立·運營에 관한 研究 ('92.10)	共同
92-29	日本の 産業 및 貿易構造의 變化와 展望 ('92.10)	金昌男
92-30	Korea's Recent Foreign Exchange Rate Systems: ('92.12)	김진천
93-01	GATT 및 主要先進國의 反덤핑制度和 우리나라 制度의 改善方案 ('93.01)	蔡 旭
93-02	우리나라 市場開放政策의 特徵과 效果 ('93.01)	韓弘烈
93-03	中國 國營企業 改革의 展開와 展望 ('93.02)	金時中
93-04	日本の 技術貿易 ('93.02)	俞鎮守
93-05	豆滿江地域 開發構想에 대한 論議와 展望	金學洙
93-06	블럭化時代의 亞·太經濟協力	共同
93-07	中國의 技術導入 政策과 中日技術協力	吳勇錫
93-08	러시아의 軍需産業 民需轉換에 관한 研究 ('93.03)	朴濟勳
93-09	日本市場에서 韓國의 競爭力 分析 ('93.03)	康仁洙
93-10	日本 換率政策의 方向과 우리나라 輸出入에 미치는 影響 ('93.03)	金宗萬
93-11	日本 自動車産業의 競爭力 強化와 下請分業生産의 役割 ('93.04)	任千錫
93-12	先物去來 上場品目 選定에 관한 研究 ('93.04)	曹正錄
93-13	우리의 對舊蘇聯 經濟協力 基本戰略 ('93.04)	李昌在
93-14	外換市場介入政策의 效果分析과 換率政策에 대한 政策示唆點 ('93.05)	金泰俊
93-15	中國의 工業發展戰略과 産業政策 ('93.05)	金益洙
93-16	中國 輸入構造變化와 우리의 對應方向 ('93.05)	鄭永祿
93-17	EC 經濟統合과 우리나라의 輸出構造 變化 ('93.05)	閔充基
93-18	韓美間 産業構造의 特性이 輸出入에 미치는 影響 ('93.08)	成克濟
93-19	NAFTA의 出帆과 美國 輸入市場에서와 韓國과 멕시코의 競爭力 比較 ('93.08)	金尙謙
93-20	EC市場에서의 韓國의 競爭力 分析 ('93.08)	金博洙

#### ■ 政策資料

90-01	蘇聯·中國 및 東歐의 變化와 對應 ('90.01)	共同
90-02	1990年代 國際經濟 環境 變化와 對應戰略 ('90.06)	共同
90-03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協商의 進展狀況과 우리의 對應方案 ('90.08)	朴泰鎬
90-04	中國의 經濟改革에 있어서 分權化 및 市場經濟化의 展開 ('90.10)	蘇尙燮
90-05	美國·日本の 金融自由化와 政策示唆點 ('90.11)	李長榮

91-01	北韓의 에너지 需要와 供給 ('91.03)	張榮植
91-02	北韓의 貿易 및 對外經濟 ('91.03)	姜正模
91-03	蘇聯 經濟改革政策과 우리의 對應 ('91.05)	李善煥 方燦榮
91-04	臺灣·日本의 金融自由化와 政策示唆點 ('91.09)	李長榮
91-05	外國人 直接投資의 生産性 效果分析 ('91.10)	崔仁範 玄定澤
91-06	韓國의 對베트남 經濟協力 基本戰略 ('91.11)	金學洙
91-07	蘇聯建設市場과 韓國建設業體의 進出 可能性 分析 ('91.12)	朴康植
91-08	技術障壁에 대한 國際的 論議와 對應方案 ('92.12)	孫讚鉉
92-01	中國工業經濟效率과 工業體制改革에 관한 研究 ('92.01)	共同
92-02	獨立國家聯合의 出帆과 韓·蘇 經濟協力 ('92.01)	朴濟勳
92-03	外國人直接投資의 不振要因과 活性化方案 ('92.03)	金南斗 柳在元
92-04	EAA 創設의 問題點과 域外國들에 대한 影響 ('92.04)	閔充基
92-05	아시아 主要 開發途上國의 非關稅障壁 ('92.07)	魯在峯
92-06	EC 海運産業의 變化와 示唆點 ('92.08)	閔充基
92-07	海外直接投資의 現況과 政策課題 ('92.09)	共同
92-08	클린턴 次期 美國大統領의 經濟政策 ('92.11)	共同
92-09	對內外與件 變化와 韓中經濟協力の 新構圖 ('92.12)	金益洙
92-10	1993年度 國際經濟環境變化展望과 對應戰略 ('92.12)	共同
93-01	南北韓 物資交流와 原產地規程 ('93.05)	韓弘烈
93-02	GATT 最惠國待遇 原則과 南北韓 物資交流 ('93.07)	韓弘烈
93-03	韓國의 無償援助와 有償援助의 連繫方案 ('93.07)	金學洙
93-04	EC 競爭政策 變化와 우리의 對應方案 ('93.08)	閔充基

#### ■ 세미나資料

- EC 統合과 政策對應 ('90.1) 共同
- 우루과이라운드 協商과 우리의 對應方案 ('90.4) 朴泰鎬 編
- 韓國과 社會主義圈의 關係發展 및 南北韓 關係變化的 展望 ('90.6) 吳勇錫 編
- Jang-Won Suh and Jae-Bong Ro (eds.),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The Way Ahead ('90.11)
- EC統合과 우리의 대응방안 ('91.2) 閔充基 編
- Taeho Bark and Wook Chae (eds.), Uruguay Round: Unresolved Issues and Prospects ('91.9)

- Jang-Won Suh (ed.),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Perspectives and Challenges ('91.12)
- Chung Ki Min (ed.),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EC and Korea: Problems and Prospects ('92.6)
- Jehoon Park, Russia's Reform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92.9)
- Jin Young Bae (ed.), Two Years Since German Unification ('93.2)

### ■ Working Paper

---

- Chungsoo Kim,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Bodies in the Asia-Pacific: Working Mechanism and Linkages ('90.8)
- Lynn Krieger Mytelka, Strategic Partnering Activity by European Firms through the ESPRIT Program ('90.8)
- Sung Yeung Kwack, Models of Exchange Rate Behavior: Application to the Yen and the Mark ('91.1)
- Taeho Bark, Anti-dumping Restrictions against Korean Exports: Major Focus on Consumer Electronic Products ('91.5)
- Yoo Soo Hong, Implications of Economic Reforms in CEECs for DAEs: with Emphasis on the Korean Case ('91.7)
- Jang Hee Yoo, The ANIEs-an Intermediate Absorber of Intraregional Exports? ('91.7)
- Taeho Bark, The Uruguay Round Negotiations and the Korean Economy ('91.10)
- Janghee Yoo, Changing World Trade Environment and New Political Economics ('92.9)
- In-Soo Kang, Economic Effects of Import Source Diversification Policy (ISDP) ('93.1)
- Jai-Won Ryou and Byung-Nak Song, Korea'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Southeast Asia ('93.3)
- Sung-Hoon Park, German Economy after Unification-Facts, Prospects and Implications for Korea ('93.6)
- Wook Chae, A Note on Korea's Anti-dumping System and Practices ('93.6)

政策資料 93-05

**최근 世界經濟의 沈滯와 우리經濟에의 示唆點**

---

1993年 9月 14日 印刷

1993年 9月 18日 發行

發行人 柳 莊 熙

發行處 對 外 經 濟 政 策 研 究 院

서울市江南區大峙洞942-1番地君子빌딩14層-18層

電話：528-5555 FAX：528-5511, 5522

登錄：1990年 11月 7日 第 16-375號

印 刷 오름시스템(주) 전화：273-7011

---

\* 本 報 告 書 內 容 的 無 斷 轉 載 · 譯 載 · 複 寫 量 禁 限